



2019 미국 생명보험산업 전망

권오경 연구원

연구

미국 보험연구기관인 LIMRA는 미국 개인 생명보험이 2019년 전년 대비 4% 성장하여 신규 보험료가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개인연금보험 판매는 금리 상승과 공시이율 상승 등으로 2019년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고객에 대한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철학을 보유한 보험회사의 신규 고객 유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한편 보험사기는 2019년에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응노력이 요구됨

■ 미국 보험연구기관인 LIMRA는 미국 개인 생명보험이 2019년 전년 대비 4% 성장하여 신규 보험료가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개인 생명보험 신규보험료는 연납화보험료 기준으로 2017년 142억 달러에서 2018년 145억 달러, 2019년 150억 달러로 전망됨
 - 가치분소득 증가와 금리 상승, 그리고 실업률 하락이 2019년 개인 생명보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Indexed Universal Life)²⁾은 미국 주식시장 약세가 예상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10년 동안 저금리, 주가지수 상승 등을 배경으로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 상품은 일반 유니버설보험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연납화보험료 기준 신규보험료는 2008년 5억 달러에서 2017년 2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3/4분기까지 누적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하여 19억 달러 수준에 이름
 - 그러나 2019년 주가지수 상승세 둔화와 금리상승이 전망되어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의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측됨

1) Scott R, Kallenbach(2019. 1. 17), "2019 Predictions: More than a crystal ball", LIMRA
 2)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 해약환급금은 주가지수 상승에 따라 증가하고 주가하락에도 최저 보증금은 보장됨

- 개인연금보험 판매는 금리 상승과 공사이율 상승 등으로 2019년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개인연금보험 신규 판매규모는 지수연동형 상품의 증가세 확대로 2017년 2,035억 달러를 기록함
 - 상품별로 변액연금은 2017년 982억 달러인데, 2019년 0~5% 감소가 전망되며, 정액연금은 2017년 1,053억 달러로, 2019년 10~15% 증가가 전망됨

- 고객에 대한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철학을 보유한 보험회사의 신규 고객 유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미국 노동부(DOL)는 2018년 6월 철회된 신인의무 규정(Fiduciary Rule)에 대한 개정안을 2019년 9월 발표할 계획임
 - 2018년 7월 뉴욕주는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 상품 판매에 대해 최선의 이익 기준을 도입했으며(뉴욕 주 보험법 187), 동 규정은 2019년 8월 1일 발효될 계획임

- 한편 보험사기는 2019년에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응노력이 요구됨
 -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회사는 고객관리 및 계약자 보호 간의 균형 유지를 위한 기술 및 프로세스에 더욱 투자해야 할 것임 **kiri**